

기고

“생명을 지키는 첫 손길”

응급처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단 4분,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신고자)나 주변인의 응급처치 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삼급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우리 안도군처럼 섬 지역의 경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욱 큼니다.

안도소방서의 구급활동 사례를 보면 섬 지역의 특성상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119 나르미션이나 해경선, 철부선 등을 이용하여 섬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신고자)나 주변인의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분의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도소방서는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고령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안심콜 등록제를 통해 독거노인과 중증질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맞춤형 처치와 이송시간 단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보건소·해경·지역응급의료기관·민간단체(119나르미션 등)와 함께 섬 지역 구급 이송협의체도 운영하여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응급처치는 결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민 여러분의 손길이 위급한 순간,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준비, 지금 이순간부터 함께 시작 해 주십시오. 안도소방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 존중의 마중물, 더 안전한 안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도소방서장 이민석

갈수록 패거리 의식이 심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특히 극소수 가진 자들의 선택은 공포스러울 정도다. 수많은 버리들이 터질 때마다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치권, 관료사회, 경제계, 문화체육계 등 도처가 그렇다. 전언에 의하면 과거에 어떤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은 거의 모든 권력기관에 라인을 형성해서 힘을 발휘했다고 한다. 과거 군 사정권 시절에는 패거리 조직인 하나회가 굶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한 적도 있었다.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학연, 지연, 종교, 특정 봉사클럽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 오고 있다. 특히 특정 고교 인맥은 거만을 넘어 방종하기까지 했다는 느낌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4막 5장이 끝나가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란 말이다.

참으로 웃기는 세상 아닌가. 이런 사회에서는 백그라운드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아웃사이드로 전락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밝고 명랑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열성 교배가 되어 열성을 가미한 악성 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이런 부정적 현상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악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병리적 현상들의 일부분이다. 때문에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구상에 아주 조그만 영토지만 살짝 걸치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한반도의 반은 우리의 통치하에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난무하는 부정적인 작태들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리더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만 봐도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섬기는 리더십을 말한다.

특징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말한다. 서번트 리더십은 경영학자 그린리프(R.Greenleaf)에 의해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헤르만 헤세(H.Hesse)의 ‘동방순례’에 나오는 서번트인 레오(Leo)를 통해 그 개념

을 설명했다. 서번트 리더십의 사례는 세계적인 청소년기업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 전 회장, 옐로홀(Yellowhot)의 창업주 가가야마 히데사부로,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진정한 서번트 이태석 신부 등이다.

스피어즈(Spears)는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물론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리드해 간다면 소외계층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만은 확실하다. 생동감 있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패거리 의식이 무너질 것이고 이는 곧 패거리 집단의 와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로 자리잡아갈 것이라 믿는다. 서번트 리더십 또는 이를 적용한 리더십으로 전향적인 사회를 형성해가면 어떨까.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날이 올 때까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금은 ‘발·해파리 쏘임’ 주의보 발령 중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격성이 강한 말벌에 의한 벌쏘임 출동과 벌집 제거 출동이 많아졌다. 또한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파리 쏘임사고도 주의하여 대처해야 한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나 들에 벌이 있을 법한 장소에서는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쉼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다. 특히 등산이나 제초 작업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의 활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벌에 쏘이게 된다면 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 등 납작한 물건의 모서리로 긁어내듯 벌침을 제거한 뒤 소독한다. 이후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해 준다.

바닷가에 출몰해 피서객을 위협하는 해파리도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존재다.

해파리 쏘임사 고를 방지하려면 바다에 입수할 때 최대한 피부 노출이 적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부유물이 많은 곳은 피한다.

만약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했다면 해파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 밖으로 나와 쏘임 부위를 해수로 씻는다. 피부에 남아있는 촉수는 맨손으로 만지면 일부 사

람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핀셋이나 장갑을 사용해 제거한다. 통증이 남을 경우 45℃ 정도의 미온수로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벌이나 해파리 쏘임으로 심한 통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지속된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불별더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찾아보고 폭염 대처 요령도 설명해 드리며 부모님이 일하시는 눈·발 주변 벌집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효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음력 윤 6월 2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for August 20, 2025.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It also lists the publisher and editorial board me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Text includes 'Korea's Life Line' and 'Korea's Life Line'.